

오층탑 터

이 초석들은 엔교지 절 경내를 묘사한 오래된 참배도나 에마키모노(설명의 글이 곁들여진 그림 두루마리)에 그려진 오층탑의 최후의 유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331년에 미쓰노도(三之堂)를 모두 불태운 화재는 다이코도(大講堂) 가까이 있었던 탑에 떨어진 벼락 때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락이 떨어진 탑에는 금강계 만다라의 다섯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고, 한편으로 초석이 남은 이 탑에는 태장계 만다라의 다섯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밀교의 천태종(天臺宗)과 진언종(眞言宗)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며, 오층탑은 중요한 의식의 장소로서도 이용되었습니다.

불교에서 탑은 석가모니와 다른 성인들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함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름 높은 승려나 비구니의 시신을 화장한 뒤의 뼈는 수정 같은 상태로 남는다고 하며 사리라고 부릅니다. 탑은 나라, 시대, 불교 종파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건축되지만 일본에서는 3~5층으로서 탑 위에는 9단의 청동 상륜이 놓여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탑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신성한 산인 수미산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